

‘운동’ 차원 넘어 학문으로 터잡은 ‘환경학’

철학적 탐구에서 경제학적 현상분석까지 다양

연초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온국민의 화제이자 ‘애물단지’로 등장했다. 다분히 이상적이고 관념적인 차원에서 논의되던 환경문제가 대기오염과 식수오염 등 생활의 심각한 ‘불편함’으로 다가오자, 급기야 일상생활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 것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일찍이 출판에서도 나타났다. 90년대 초반, 「환경을 살리는~가지 방법」 등 일상생활에서 알아두고 실천해야 할 일반상식서가 줄지어 등장하는가 하면, 환경문제의 실상을 고발하는 환경백서와 보고서가 쏟아지기 시작해 한때 서점가의 점두를 장식하기도 했다. 때를 맞추어 지난 91년 겨울에는 국내 최초로 환경전문잡지인 「녹색평론」이 창간되기도 했다.

지금까지도 이들 환경관련서는 하나의 출판 장르를 이룰 정도로 꾸준히 출간되면서 그 종류의 다양함을 더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환경관련서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일반인 대상의 상식서나 실용서 수준을 넘어 환경문제를 본격적인 학문의 대상으로 삼은 ‘환경학’ 혹은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철학 등 다른 분과학문과 접목시킨 노력의 성과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해 학계 안팎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철학적 입장에서 바라본 환경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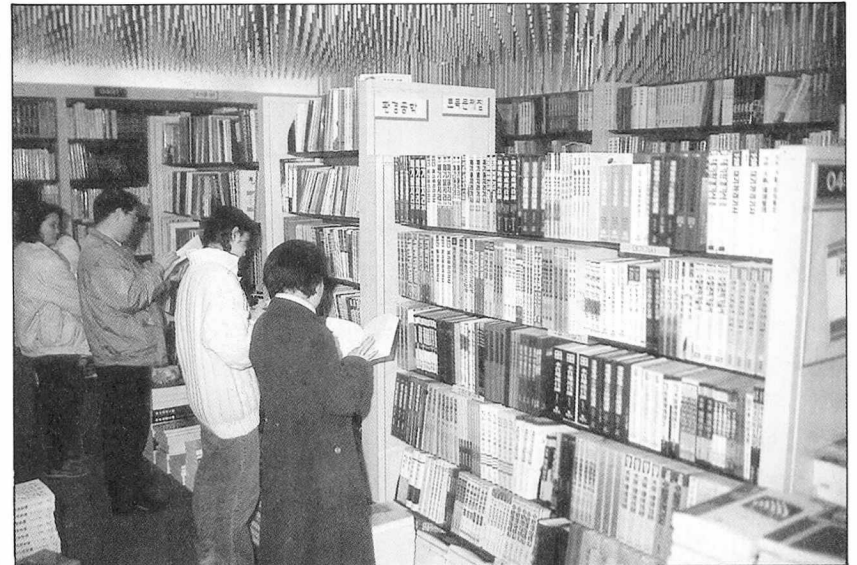
환경문제를 하나의 학문으로 정초시킨 저술로는 「녹색정치사상」(앤드루 톱슨 지음, 정용

화 옮김, 민음사)을 필두로 꼽을 수 있겠다. 지난 93년 소개된 이 책은 런던 키일대 정치학과 교수인 저자가 환경문제를 ‘녹색 이데올로기’ 즉 정치사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저자는 우선 환경에 대한 관리자적 입장을 취하는 ‘환경주의’와 자신이 주장하는 ‘생태주의’라는 정치 이데올로기를 구분한다. 그동안의 인간중심적인 환경주의를 넘어서, 유한한 지구에서의 성장 한계와 산업사회 속에서의 여러가지 딜레마를 철저히 인식하고 근대 합리주의적 가치관 및 정치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미 강력한 정치이데올로기로 자리잡고 있는 기술중심적 사고방식을 견제한다는 의미에서도 이 녹색 이데올로기의 존재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철학적 입장에서 환경문제를 바라본 저술들도 환경운동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최근에 소개된 「환경윤리학」(유진 하그로브 지음, 김형철 옮김, 철학과현실사)은 환경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도덕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책으로, ‘환경철학서’라고 불리도 무방할 만한 역작으로 평가된다.

연대 철학과 김형철 교수의 꼼꼼한 번역으로 선보인 이 책은 자연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은 그 자체로 객관적 도덕가치를 갖는가, 아니면 인간에 대한 유용성 여부에 따라 인간



최근의 환경학술서 출간은 환경문제의 종합과학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분과학문과의 접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 주관적 도덕가치의 종속물에 불과한가, 왜 자연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하는가 등 다분히 철학적인 질문들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서양철학사의 차원에서 찾고 있는 저자는, 환경오염의 참상을 알리는 책들은 많아도 이의 철학적 기초에 대한 탐구서는 드문 현실을 지적하고 “인간중심적이면서도 환경친화적인 철학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작업을 보여준다.

환경문제가 자본주의의 특수한 생산양식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는 그동안의 주된 관점은 환경문제의 핵심을 관통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저자는, 예의 철학적 질문들을 통해 환경윤리에 대한 개념을 명료화하고 가

치기준을 선정하는 등의 철학적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적절한 역사적 사례를 들어가며 철학적 입장들을 검토하고 있어 자칫 무겁기만 할 내용에 읽는 재미를 더해주고 있기도 하다. 예컨대, 환경윤리의 발전을 방해하는 입장의 하나로 ‘토지사용태도’를 들면서, 역사적으로 서구 사유재산 개념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간파해내고 있는 것.

일종의 응용 윤리학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책은 또한 최근의 인문과학, 특히 철학의 응용 분야 확장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눈여겨 볼 만하다. 환경윤리학의 범주로 묶여 여기서 다루고 있는 분야는 미학, 형이상학, 인식론, 과학철학, 사회철학, 정치철학 등에 걸쳐 있다.

환경운동의 사상적 기반 고찰

역시 최근에 출간된 「환경휴머니즘과 새로운 사회」(이윤재 엮음, 소나무)는 새로운 대안적 사회운동의 하나로 환경운동의 사상적 기반을 살피고 있다. 개론에 해당하는 엮음이의 머리글과 독일학자들의 7개 논문으로 구성된 이 책은 따라서 이른바 ‘녹색운동’의 효시로 알려진 독일 환경운동의 뿌리를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크게 두부분으로 나뉜 1부에서는 서구 산업문명의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운동을 다루고 있다. 독일을 중심으로 한 서구사회에서 80년대 이후 “묵시론적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여러 징후들이 등장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운동들이 태동하게 된 사회구조적인 요인들을 분석하고 있다.

인류지식과의 즐거운 만남

「시공 디스커버리 총서」 1차분 7권 출간



우주의 신비에서 개구리의 생태에 이르기까지, 신석기시대부터 뉴턴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온갖 지식과 정보를 시나리오처럼 극화된 시각자료와 함께 엮은 프랑스 갈리마르사의 ‘발견총서’ 한국판이 시공사에서 출간됐다.

「시공디스커버리 총서」라는 이름으로 간행되는 국내판은 우선 1차분 7권이 먼저 선보였으며 올 상반기 안에 20권까지 출간할 예정.

1권 「문자의 역사」는 6천년의 세월을 간직한 인류문명의 근원을 술한 관련자료 삽화로 보여준다. 메소포타미아의 설형문자와 이집트·중국의 문자체계, 페니키아인에 의해 3천년

전 창조된 알파벳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2권 「잊혀진 이집트를 찾아서」는 고대 이집트문명의 신비를 벗기려는 수많은 탐험가들의 발굴과정 등이 추리소설처럼 전개된다.

3권 「고래의 삶과 죽음」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공포와 신비의 대상으로 술한 전설을 간직해온 바닷속 포유동물 고래이야기를 담았으며 4권 「실크로드-사막을 넘은 모험자들」에선 동서양 두 문명의 만남의 길이던 실크로드의 역사를 살펴보고 5권 「그리스문명의 탄생」에서는 호머·피타고라스·헤로도토스 같은 영웅을 낳았던 고대 그리스문명을 찾아 보여준다. 6권 「마야」 편에서는 19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한 찬란한 마야문명을, 7권 「반 고흐」 편에서는 인간의 영혼을 꿰뚫는 그림을 그렸던 고흐의 삶을 담고 있다.

시공사/B6변형/각 200면 내외/각 6000원

목표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한다?

목표 시장의 설정을 위해 성공한 단행본에서 배울 점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좀더 정확하게 목표 시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목표 시장의 설정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특별한 몇몇 경우를 빼면, 단행본을 만들면서 '머릿속으로' 목표 시장을 설정하는 것은 거의 무의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출판 상황이 '시장 조사'를 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분석되어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책이 '관념을 파는 상품'이라는 점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썬어지는 것'이 '목표 시장에 알맞는가' 하는 문제와도 연관성상에 있는데, 이를 간단하게 '분석'해 낸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목표 시장을 설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관록 있는 출판사가 가진 노하우와 같은 의미가 아닌가 합니다. 오랜 세월을 걸쳐 독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긴 출판사들은 저마다의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의 성격 또한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맞은 책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그 시장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로 도서출판 까치나 범양사 출판부, 정신세계사, 열린책들, 문예출판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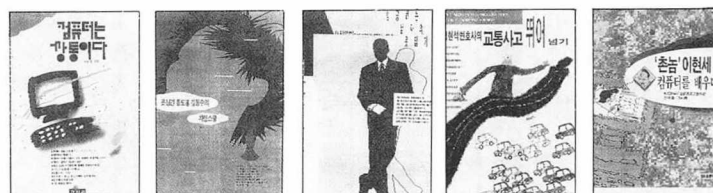
<현대과학과 동양사상의 만남>과 같은 오래 된 베스트(검 스테디)셀러를 펴낸 범양사 출판부는 주로 과학 분야의 단행본을 내고 있는 독심 강한 출판사입니다. 정신세계사는 워낙 베스트셀러가 많았으니 독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곳 또한 독특한 자기 시장을 개척해 왔고, 그 시장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주목할 만한 사실은 도서출판 까치나 문예출판사의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하나의 시장을 만들어서 지켜나가는 정신세계사와는 달리, 도서출판 까치와 문예출판사는 주제에서 다소 산만한 느낌이 들 정도로 여러 분야의 책을 내면서도 시장을 잘 지켜나가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들 출판사만의 시장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데스몬드 모리스의 작품을 꼽을 수 있습니다. <만위창>(도서출판 까치), <바다위창>(범양사 출판부)과 같은 책들입니다. 이는 <털없는 원숭이>(정신세계사)로 잘 알려진 데스몬드 모리스의 연구 성과입니다. 이 책들은 모두 각각 다른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다음호에 계속(바다출판기획팀)

● 바다출판기획이 기획하고 만든 베스트셀러입니다.



어떤 형태의 저작물이든 - 종이 책에서 CD-ROM까지 - 보다 고급스러운 결과를 원하신다면 바다저작권회사 출판기획팀을 만나 보십시오

- 출판 기획
- 취재 및 집필
- 전문 교열
- 편집 대행
- 저작권 위탁 관리

최근의 환경관련서들은 환경문제의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실용서 수준을 넘어 본격적인

학문대상으로 삼은 '환경학'과

다른 분과 학문과 접목시킨 노력의

성과들이다. 이같은 환경관련

학술서의 출간은 환경문제가 갖는

종합과학적 특성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더욱 다양한 분과학문과의 접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 2부에서는 저자가 현재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꼽고 있는 녹색운동의 정신적 이념을 살피고 있다.

녹색운동의 이념은 과거 맑스-레닌주의처럼 이미 완결되고 통일된 체계가 아니라 이제 형성중인 알려진 이념임을 강조하고 있는 이 책은 자본주의나 현존사회주의를 막론하고 경제성장과 생산력 향상을 사회의 최고가치로 신봉하는 한, 즉 산업주의라는 낡은 틀에 머물러 있는 한 오늘날과 같은 '집단지살체제'는 계속될 것이라는 독설을 서슴지 않을 정도다.

「마르크스주의와 생태학」(라이너 그룬트만 지음, 박만준·박준건 옮김, 동녘) 역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와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철학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책이다. 다양한 철학적 입장들 중에서도 마르크스주의가 생태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이 책은, 마르크스의 인간론과 진화론적 사고가 현대사회의 생태학적 문제의 기본 특징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있다. 포스트마르크스주의의 체계이론적 사회이론, 사회진화론, 기능론적 분화이론 등을 마르크스의 역사유물론의 틀에 대입하는 등 마르크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돋보이고 있기도 하다.

「녹색경제학」 등 국내 학계 성과도 출간

지금까지 소개된 이 방면의 책들이 대부분 번역서라는 한계를 갖고 있음에 비해 최근 선보인 「녹색경제학」(이정전 지음, 한길사)은 그동안 축적된 국내 학계의 성과를 알리는 포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이자 환경처 중앙환경보존자문위원이기도 한 저자는 경제학에서도 생소한 환경경제학이라는 과목을 이미 10여년전부터 개설한 '선구적인' 학풍에 빛진 바 크다고 밝히고 있어 국내 환경학계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저자에 따르면 환경경제학이란 예컨대, 환경오염은 경제활동의 결과이므로 경제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 따라서 이런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환경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 환경문제 해결에 경제적 유인책이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것,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것 등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자연과학은 환경문제라는 현상 자체를 주로 다룸에 비해 경제학은 이 현상뒤에 도사리고 있는 요인들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환경문제에 보다 근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보는 저자는 특히 경제학의 핵심인 수요와 공급이론에 입각해서 환경오염을 적정수준으로 줄이는 방법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이중 바람직한 환경정책으로 저자는 정부의 직접적 개입을 자제하고 배출부과금, 쓰레기 수거료 및 폐기물 관련 부과금, 보조금 제도, 거래가능배출권 제도 등 경제적 혜택과 불이익을 담보로 한 간접규제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빈부격차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환경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을 지적하고 있기도 한데, 지난 92년 브라질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도 선진국과 후진국과의 환경문제에 대한 현격한 인식차이를 보여주었던 소득분배의 문제는 경제학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환경학에서도 중요제임을 새삼 일깨우고 있다.

최근 들어 속속 출간되고 있는 이들 환경관련 학술서들은 일반인들이 읽기에 부담스런 내용임에도 틀림없지만, 단순한 환경운동의 차원을 넘어 본격적인 하나의 분과학문으로 자리잡아가는 환경학의 현재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학계는 물론 환경운동 관계자들도 의미있게 받아들이고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환경학의 폭과 깊이를 더해주고 있는 최근의 학술서 출간은 이정전 교수도 지적하듯, 환경 문제가 갖는 종합과학적 특성에 기인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다양한 분과학문과의 접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소연>